

朝鮮朝 치마 再考

-16세기 출토복식을 중심으로-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民俗博物館
研究室長 朴 聖 實

目 次

I. 서 론	1. 명칭
II. 16세기 출토복식에 나타난 의례용 치마	2. 착용방법
1. 정경부인 恩津宋氏 치마	3. 착용범위
2. 숙부인 原州元氏 치마	4. 바느질방법
3.懿惠公主(中宗繼妃 文定王后 2女) 孫女 淸州薛氏 치마	V. 결 론
4. 禮安李氏 치마	참고문헌
III. 再考사항	ABSTRACT

I. 서 론

최근 20여년간 발굴된 다량의 출토복식으로 조선조의 복식구조는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형태의 옷들이 발견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확실한 고증이 요구되고 있으며 再考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게 지적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재고되어야 할 부분은 옷의 명칭이다. 동일한 형태의 옷임에도 불구하고 소장처나 보고서에 따라 각기 다른 명칭으로 표기됨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연구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요민속자료 제117호로 지정된 충북대학교 소장 전차장군묘 출토복식 중 긴소매가 달리고 사각형 모양의 方領깃에 좌 우길이 대칭형이며, 뒷길의 길이가 앞길보다 짧은 형태의 무명옷이 1991년 지정당시 褙衣로 명명되었으나(문화재관리국 :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편 下 p149) 1995년 국립민속박물관 주최 '한국복식 2천년' 북

별전에 협찬 전시되었을때는 褙衣(국립민속박물관 : 한국복식 2천년 도록 p107)로 명명되었다. 또 한 고려대학 소장 중요민속자료 제113호로 지정된 깃, 소매, 무 없이 앞과 양옆이 트이고 뒤가 짧은 洪鑣宗의 출토복식을 褙褸로, (같은책 p129) 같은 옷을 상기 특별전에는 褙子(같은책 p117)로 명명하는 등 집필자에 따라 그 명칭을 달리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래되는 장옷구조와 같은 형태를 直領直領袍 두루마기로, 반소매가 달린 직령포를 半袖直領袍·褙褸로, 다양한 형태의 여자 저고리 표기 등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다.

출토복식류를 확실한 실물자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와 유사한 시대의 문헌기록과 비교하여 당시의 명칭을 찾아주는 고증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연구가 이루어짐으로써 시류를 따라 변화된 복식의 특징이 유형별로 드러나게 되면 실물을 통한 조선조 복식의 변천사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물을 관리하고 있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필자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재고찰되어야 할 복식을 선별하여 문제를 제시한 바 있다.¹⁾

그밖에 이미 상식화된 내용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치마의 경우처럼 왼쪽여밈이 상류층 부녀자의 착장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출토 치마 중에는 오히려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본고는 3번째 시도로서 16세기 출토복식 중 공통점을 가지고 발견되는 치마에 관한 것이다.

출토복식은 매장상태, 분묘여건, 이장방법에 따라 발굴되는 수량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발표된 여러분묘의 출토복식을 종합하여 비교 분석해야 실물자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본고의 대상인 치마는 출토된 양도 타복식류에 비해 적을뿐 아니라 완형으로 발굴된 형태는 소량만이 보존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유사한 시대에 각기 다른 분묘에서 발굴된 의례용으로 추정되는 몇점의 치마류는 대담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고있다. 이를 통해 치마의 종류, 여밈의 방법, 착용방법과 범위, 바느질 방법 등 재고찰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않게 발견된다.

본고에서는 특별전을 통하여 소개된 바 있는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이하 본 박물관) 소장의 16세기 출토 치마를 중심으로 여타자료와 비교하여 형태를 재고찰함으로써 후반기 치마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조선조의 치마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당시의 디자인이 현대감각에 맞게 널리 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II. 16세기 출토복식에 나타난 의례용 치마

16세기 말엽은 임진왜란의 대전란이 勃發하였던 시기로서 이를 기점으로 조선조의 복식구조는 전 후반기로 양분되기 시작하는 조짐을 보인다.

본 연구 대상인 실물자료는 1550년대를 전후한 시기의 유물로서 전반기 제도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시대에 나타나는 치마류의 대표적인 특징은 그 형태로 미루어 의례용과 평상용으로 대별되고 있으며 평상용은 치마주름이 넓고 치마길이는 짧게 되어있다. 길이와 폭을 길고 넓게 과장한 의례용으로 추정되는 치마에는 앞중심 부분은 짧게 처리하여 보행시 불편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다. 당시의 저고리류가 50~80cm 정도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할때 치마는 허리에 입게 됨으로써 치마길이가 짧은 형태였음은 당연하다 하겠다. 이밖에 방한을 목적으로 한 솜치마 누비치마류가 다수 포함되고 있다.

이 가운데서 치마길이 130cm 전후 치마폭 500cm 전후에 이르는 과장된 형태의 치마 끝 의례용으로 보이는 치마를 중심으로 그 형태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貞敬夫人 恩津宋氏 치마

1988년 경기도 고양에서 羅州丁氏 종중분묘를 이장할때 출토된 복식류 중 일부이다.

은진송씨는 忠靖公 丁應斗(贈 領議政 1508~1572년)의 配位로서 中宗 4年(1509년)에 태어나 宣祖 13年(1580년)에 卒하였으며 합장묘로 되어 있었다.

당시의 신분이 말해주듯 남·녀 고급의류들이 60여점 발굴되었다.²⁾ 그 가운데 5점의 치마가 또

1) ① 『裾襖와 戰服再考』學藝誌 第四輯 雲村 李康七先生 교회기념특집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1995.

② 『回粧赤古里와 肩巾』再考, 菊堂 孫京子教授 퇴임기념 논문집 1996.

2) 박성실 『조선전기 출토복식 연구』 세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p.159~160 1992.

함되어 있으나 과손이 심해 완형의 형태는 볼 수 없다. 그러나 겹치마와 숨치마 각 1점, 홑치마 3점으로 된 치마류는 그 형태를 달리하고 있음이 확

인된다.

상당부분 훼손되어 복원작업이 어려웠으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표 1> 恩津宋氏 치마 종류 및 특징

(단위 : cm)

종류	내용	衣料	色	길 이	폭	주름나비	특 징
① 겹치마		表 : 明紬 裏 : 月紬	紺色	73	12폭(1:37) 444		
② 숨치마		表 : 雲紋緞 裏 : 明紬	연두색 일록	101	7 ³ / ₄ 폭(1:61) 472		
③ 홑치마1		蓮花唐草紋紗	연갈색	前 98 後 126	8폭(1:62) 496	2.5~3.5	다-트형 옆주름 적갈색안단
④ 홑치마2		明紬	녹갈색	前 101 後 129	14폭(1:36) 504		다-트형 옆주름 제물단
⑤ 홑치마3		香寒紵	녹갈색	前 95 後 123	8폭(1:62) 496	2.0~4.5	다-트형 옆주름 적갈색안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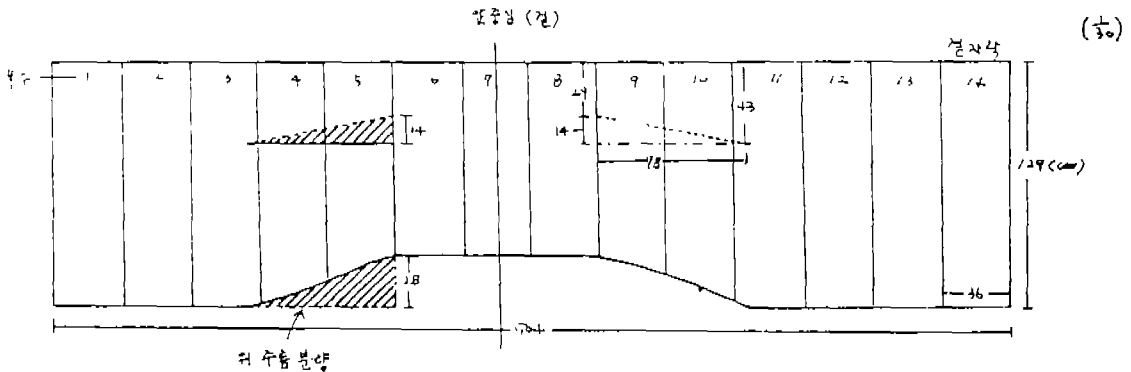
이상 5점의 치마류를 보면 겹치마와 숨치마는 홑치마의 길이 및 형태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 금박이나 금직 등의 장식이 없어도 평상용과 의례용의 구분임을 짐작할 수 있다.

과손이 심한 상태의 홑치마 3점은 남아있는 부분으로 미루어 동일한 형태임이 밝혀졌다. 폭과 길이에서 여유를 보이는 홑치마는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앞부분을 짧게 하고 양옆에서 부터 뒤쪽으로 갈수록 지면에 끌리는 부분을 많게 하여 뒷부분

을 강조함으로써 여성스러운 우아한 선을 만들어 주었다. 서양복의 풀백스커트(Pullback skirt)나 벅슬스커트(Bustle skirt)를 연상케 한다.

명주폭 14폭의 홑치마 2와 비단폭 8폭의 홑치마 3을 통해 구체적인 제작방법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1) 홑치마 2



<그림 1> 恩津宋氏 홑치마 2 전개도

명주 14폭의 훌치마는 총길이가 129cm에 이른다. 그러나 앞 중심 6, 7, 8폭은 101cm로서 28cm 정도 길이의 차이를 주었다.

1-2-3-4-5, 6-7-8, 9-10-11-12-13-14폭 솔기를 각각 정교하게 흠질로 바느질하였는데 솔기시점은 2.0mm에도 못 미쳐 옷감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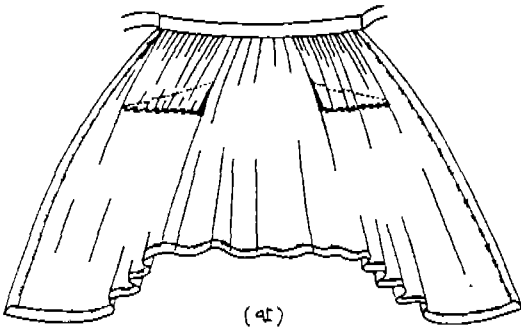
길이가 같지 않은 5와 6, 8과 9폭을 연결하기 위해서 긴폭 솔기를 짧은 솔기에 맞추어 그림과 같이 접은 다음 사선으로 주름을 잡아 바느질하여 마치 서양복의 다트를 연상케 한다.

이와같이 앞 중심폭 좌우를 동일하게 처리해 줄으로써 앞부분은 보통치마처럼 보이지만 옆선에서 뒤쪽으로는 여유있는 치마선이 우아하게 펼쳐져 여성스러움이 강조되는 실루엣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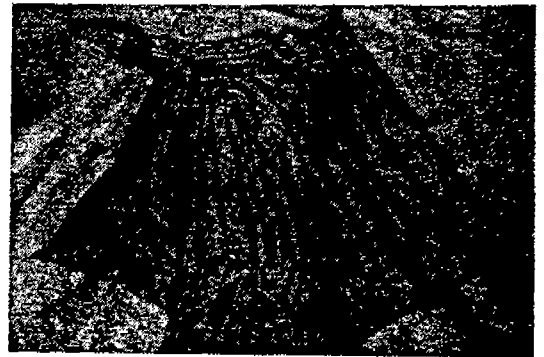
그밖에 앞중심이 된 6, 7, 8 폭을 중심으로 하여 왼쪽(입은 상태)으로 마지막 폭(14번째 치마폭)을 보내어 여유를 준 것으로 미루어 왼쪽이 걸자락으로 되는 오른쪽 여밈의 치마가 아니었나 의심스럽다.

치마단은 제물단으로 처리하였는데 아랫단은 시점 1.5cm로서 시점을 거죽쪽으로 꺾고 그 끝을 바느질 한후 다시 안쪽으로 꺾어 감침질 하였는데 3뿔 상침할때와 같이 3번 감치고 1.2~1.5cm 간격을 준 다음 다시 3번 감치기를 되풀이 한 바느질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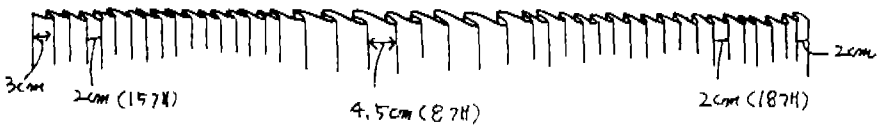
(2) 훌치마 3



<그림 2> 恩津宋氏 훌치마 3



<사진 1> 恩津宋氏 훌치마 3의 옆주름



<그림 3> 훌치마 3의 치마주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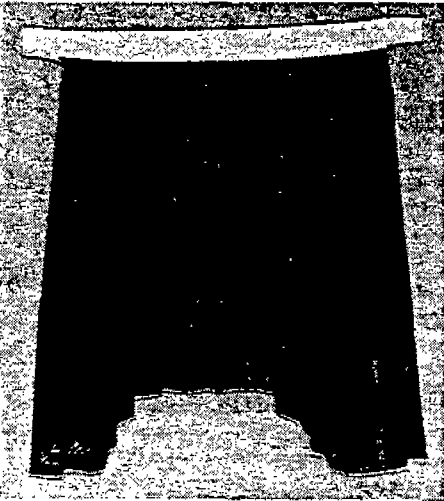
한폭 넓이가 62cm인 8폭 치마로서 <그림 2>와 같고 제작방법은 훌치마 2와 같다. 총 8폭 중 3, 4, 5폭을 앞중심으로 하였고 1, 2폭과 6, 7, 8폭을 좌우로 배치한 형태이다. 입은상태에서 왼쪽으로 8번째 치마폭을 보내 오른쪽보다 여유있게 처리한 것은 훌치마 2와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여밈의 흔적으로 보인다.

그외의 특징으로 치마주름의 형태인데 그림 3과 같이 주름간격을 일정하게 하지않고 가운데 중심 부분에는 4.5cm 넓이로 8개, 좌우에는 2.0cm 정도의 넓이로 15개와 18개로 잡아 앞보다 뒷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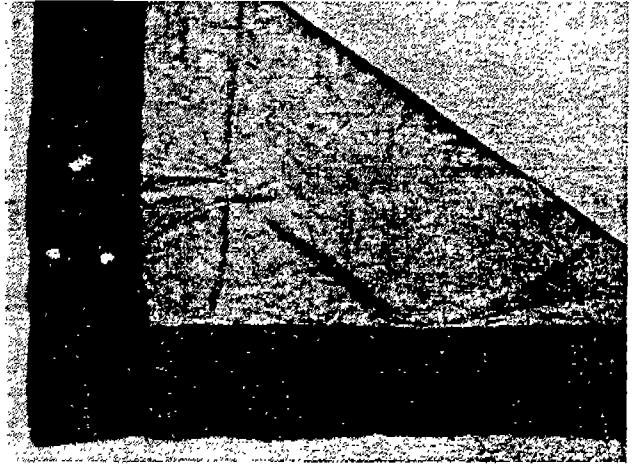
치마 솔기는 비단의 식서부분(0.7cm)을 시점으로, 정교하게 흠질하여 가름술로 처리하였으며 1.

8cm정도의 적갈색 비단을 안단으로 사용하였는데

바느질 방법은 3땀씩 감침질하였다.



<사진 2> 흠치마 3 복원품



<사진 3> 흠치마 3의 안단

2. 淑夫人 原州元氏 치마

원주원씨는 1980년 경기도 양평읍에서 발굴된 兵曹參議 洪係江의 配位로서 1450년대로 추정 받

표되었으나 그 이후 발굴된 복식류, 특히 절대연도를 갖고있는 정응두(1508~1572년) 합장묘의 복식과 비교한 결과 1550년대 전후의 유물과 동일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2> 原州元氏 치마종류 및 특징

(단위 : cm)

종류	내용	衣料	色	길이	폭	주름나비	특징
① 흠치마 1 (스란치마)	칠보연화문단 직금포도동자문단 (스란)	적갈색	前 104 後 127	9폭(1:67) 603	2.0	덧주름	
② 흠치마2	설한초	적갈색	前 95 後 129	9폭(1:61) 549	1.2~3.0	덧주름	
③ 흠치마3	설한초	적갈색	前 ? 後 129	9폭(1:63) 567		덧주름	
④ 흠치마 4	모시	白	98	12폭(1:36) 432	2.0~4.0		

(덧주름 : 치마주름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앞쪽의 치마길이를 짧게 하기위하여 앞일부를 오히려 접어준 형태를 편의상 덧주름으로 표기함)

치마 4점은 모두 흠치마이나 모시치마와 차이점을 보여 덧주름이 있는 흠치마는 의례용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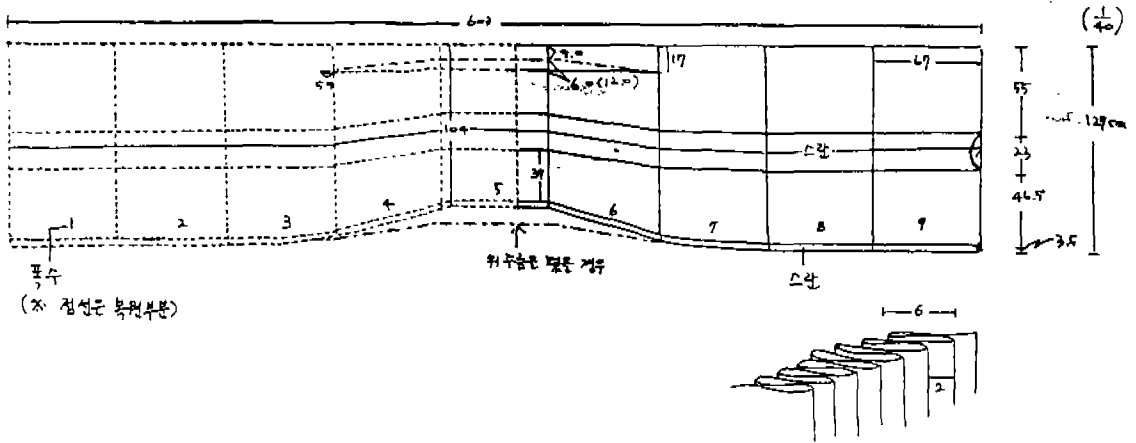
특히 흠치마 1은 직금된 스란단이 달리고 폭이 6.0m가 넘는 최고의 의례용 치마임을 알 수 있다.

스란의 부착 방식이 전래되는 국말왕실 유물과 달리 치마 중간에 달려있어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형태와 거의 동일한 치마가 明代 출토복식에도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³⁾

홀치마 2, 3도 덧주름이 있는 형태로서 주름의

처리방식에 차이는 있으나 기본구조 및 바느질 형태 등 정경부인 은진송씨 치마와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1) 홀치마 1



<그림 4> 原州元氏 홀치마 1(스란치마) 전개도



<사진 4> 原州元氏 홀치마 1(1/ 2)



<사진 5> 原州元氏 홀치마 1의 덧주름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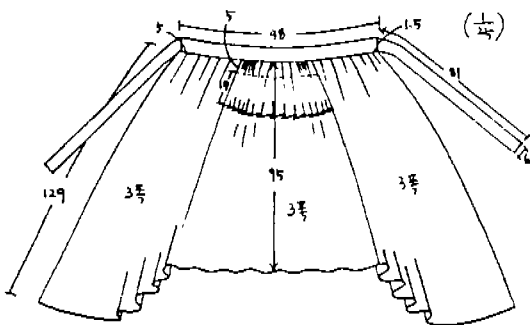
총 9폭의 치마로 추정되나 1/2정도만 남아있다. 중심폭이 되는 5번째 폭 상부에는 거죽쪽에 6.0cm(12cm 넓이)로 덧주름을 잡은 흔적이 남아있어 이를 근거로 완성된 형태가 <그림 4>의 전개도이다. 5번째 폭을 중심으로 좌우 4, 6폭을 지나 5.5cm 연장된 선에 사선으로 주름을 잡아주었다. 그 외에도 재단시 5번째 폭을 약 10cm정도 짧게 하였으며 4, 6번째 폭은 아래를 사선으로 재단하여 3, 4번째

폭 솔기와 맞게 함으로써 4, 5, 6번째 폭이 자연스런 곡선을 만들어 주고있다.

솔기는 박음질하여 가름솔로 하였고 약 10cm 간격으로 사선 가윗빔을 일률적으로 주었다. 안단을 보면 선단은 제물단으로, 아랫단은 상색 운문단으로 처리하여 결과적으로 아랫단은 화문적금단(스란), 치마감, 운문단(안단)의 3겹으로 마무리하였다.

3) 왕우청『중화복식도록』세계지리 출판사 p.171 1984.

(2) 훌치마 2



<그림 5> 原州元氏 훌치마 2

훌치마 2는 거의 완형으로 남아있는 귀중한 실물자료이다.

비단폭(1폭 61cm) 9폭 치마로 총길이 129cm의 치마이다. 각각의 폭을 동일하게 재단하여 바느질한 다음, 중심폭 3폭 상부에 17cm(34cm 넓이)의 덧주름을 거죽으로 잡아준 형태이다. 따라서 앞길이는 95cm로서 총길이보다 무려 32cm나 짧게 만들어 보행시 불편함을 해소한 또다른 디자인이다. 보행시 뿐 아니라 2개의 치마를 겹쳐 입을때의 미적효과를 기대한 디자인으로 생각해 볼 수도있다. 이는 마치 걸을때 걷어든다 하여 이름이 붙여진 거들치마⁴⁾와 유사한데 이와같은 거들치마형은 당시 상류사회에서 유행되었던 디자인임을 알 수 있다.

치마주름도 은진송씨 훌치마 3과 같이 앞부분은 넓게(4.0cm) 양옆은 좁게(1.5cm) 다시 넓게 순으로 잡아주었다.

주름의 시작(1.5cm) 및 끝부분(5.0cm) 넓이에 차이를 보이는데 이 점으로 미루어 볼때도 오른쪽 여밈용 치마로 생각된다. 이러한 형태는 본 박물관 소장 문화유씨(1617~1685년) 출토 치마류에서도 확인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주름도 걸자락부터 잡기 시작하여 경우에 따라 안자락의 주름은 일부 생략하거나 넓게 잡아 마무리 하는것이 상례로 되어있다. 현재에는



<사진 6> 原州元氏 훌치마 2

왼쪽 여밈이 대중화되어 있어 정반대로 입혀지고 있다.

슬기 바느질은 2.0mm정도의 식서를 시점으로 가름술 해주었으며 정교한 박음질로 바느질해 주었다. 도련은 모두 제물단으로 하였으며 상침형 3땀 감침질 방법을 사용하여 은진송씨 바느질 기법과 동일하였다.

본 유물은 치마허리도 완형으로 남아있는데 발이 고운 세모시로 하였으며 그 정교한 바느질 솜씨는 높은 수준의 자수작품을 능가한다.

허리넓이는 6.5cm로서 홑겹으로 하였으며 주름이 들어갈 3.0cm의 안단을 아래쪽에 대어 곱게 감침질해 주었다. 끈 역시 홑겹으로 허리 넓이와 같게 하였으며 식서쪽은 1.5cm넘겨 접어 위쪽으로 보내고 아래쪽은 1.0mm로 수놓듯이 감침질 하였다.

끈 길이는 81cm로 양쪽이 동일하다.

3. 懿惠公主(中宗繼妃 文定王后 2女) 孫女 淸州韓氏 치마

1979년 3월 경기도 과천에서 발굴되어 1980년 중요민속자료 114호로 지정되었다. 지정당시 출토품 연대는 중종~선조 년간으로 추정되었다.

청주한씨는 중종계비 문정왕후 2女の 손녀로 왕

4) 한글학회『우리말큰사전』 어문각 p.163 1991.

쪽의 뿌리를 간직하고 있다. 따라서 복식류는 최고급 비단류와 금직단의 사용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동자포도문이 직금된 스란치마는 原州元氏의 유물과 동일한 것이 주목되었다. 다만 청주한씨 스란치마는 치마자체에 스란문이 직금된 반면 원주원씨 스란치마는 별도의 스란단을 치마에 붙인 점이 다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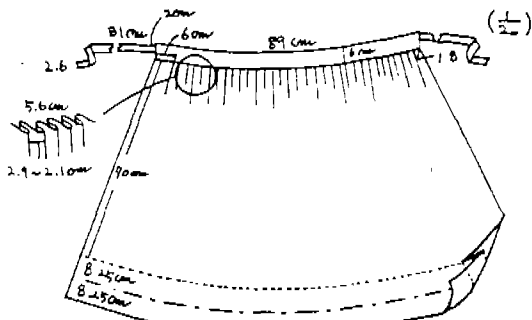
청주한씨 스란치마도 6폭(1폭 : 62cm)만이 남아있으며 총길이가 127cm에 이른다. 덧주름의 흔적이 확실하지 않다.

이밖에 5점의 치마들은 솜치마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걸치마 한점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의 모두 파손된 상태이나 치마길이가 82~100cm에 이르러 평상용임을 알 수 있다.

4. 禮安李氏 치마⁵⁾

본 유물은 안동대학 박물관 소장자로 洪河量의 배위 예안이씨(1584~1655년)의 치마이다. 임란을 전후한 시대의 유물이나 활동기는 임란후에 치증되어 있다.

겉감은 연화당초문이 정교하게 놓여진 단(段) 종류이고 안감은 거친 명주이다. 치마 말기와 끈은 고운 명주로 만들어져 있다. 거죽은 59cm 너비의 옷감이 8폭 연결되었고 안감 14폭



〈그림 6〉 禮安李氏 겉치마(출처 : 『안동지역 전통복식』 안동대학교)

으로 이루어진 470cm 정도 폭의 넓은 치마로서, 치마 하단 16.5cm 위치에 8cm 가량의 넓이로 접어서 곱게 흠질로 꿰맨 횡단이 달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름은 총 33개로, 2.1~2.9cm 간격으로 잡혀 있는데 접혀 들어간 주름의 분량은 개당 11cm 정도이다. 주름잡힌 형태로 보아 오른쪽 꼬리로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주름의 방향은 화면상으로 오른쪽을 향해 있다.

위 내용에서 오른쪽 여밈으로 추정된 내용이 본 박물관 유물과 일치된다. 다만 아랫부분의 겉으로 나온 일률적인 횡단이 길이를 줄이기 위한 것인지, 또는 2개의 치마를 겹쳐 입을때 속에 입은 치마를 드러내 보이게 하기위한 의례용 치마인지 분명치 않다.

본 박물관 소장 문화유씨 단속곳형 너른바지에는 양쪽 가랑이 아랫부분에 5.5cm(11cm 넓이)의 횡단이 예안이씨 치마와 같은 양식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보물 672호로 지정된 左議政 金德遠(1634~1704년) 配位 貞敬夫人 全州李氏 明紉 廣袴(솜을 넣은 단속곳형 너른바지)에도 솜을 두지않은 2단의 횡단이 달려있다.⁶⁾

이것은 걸치마를 퍼지게 보이도록 배려한 장식적인 역할로 보여지며 19C 중엽 유행되었던 크리노린 스커트(Crinoline skirt)를 연상케 한다.



〈사진 7〉 전주이씨 廣袴

5) 『안동지역 전통복식』 안동대학교 박물관(이은주 해설) p.4 1996.
6) 김동욱 · 고복남 『중요민속자료 조사보고서』 문화재관리국 p.83~97 1979.

Ⅲ. 再考사항

1. 명 칭

시대에 따른 유물의 명칭을 밝히는 작업은 복식의 변천사를 논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문헌은 왕실에 국한되어있고 왕실기록이라도 문헌에 따라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上赤尔·上裳·웃치마

본고에서 거론된 왕족의 후예 청주한씨 스란치마와 정 3품 당상관 부인인 숙부인 원주원씨의 스란치마가 동일하였고 이외에 청주한씨 출토복식에 버금가는 정경부인 은진송씨의 직금단 장식 저고리류, 고급필단 사용등으로 미루어 전반기 상류사회의 부녀자 복식이 상상 이상으로 화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왕실의 평상복 제도를 참조하여 볼 수 있는데, 왕실 복식제도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문헌은 국혼(嘉禮都監儀軌)이나 국장(殯殿都監儀軌)시 마련된 각 의례류이며 모두 임란후의 것이 전해지고 있다.

동자포도문스란에 관한 기록은 연산군일기 10년 5월과 6월에 ... 藍色緋緞童子葡萄雙膝襪, 藍과 紫의 童子雙膝襪⁷⁾

에 보이고 있어 치마 중간에 2줄의 포도 동자문을 쌍스란으로 표기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역대 嘉禮都監儀軌에는 袂赤尔, 襦赤尔로 기록되어 있고 다만 仁祖莊烈后의 경우만이 紫의 襦赤尔에 雙龍을 직조한 膝襪 8尺을 따로 기록하고 있다.⁸⁾

이외의 국혼관계 기록인 국말 발기에는 다홍 접치마에 대란 또는 스란을, 남 옷치마에 스란을 갖춘 기록⁹⁾이 전해지고 있다.

스란과 대란의 구분은 이보다 먼저인 順和宮(현 종後宮 1847년 간택) 帖草에 나타난다.¹⁰⁾ 즉 3명절 복식 중 탄일에 스란치마와 슬란웃치마 동시에 대란치마, 단오에 비단웃치마 縞紗웃치마. 등의 기록이다.

국장시 마련되는 염습의대들은 생존시 의대인 內備用과 이를 반영하여 만든것들로 당시의 복식 구조를 알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기록이다.

王亂前의 복식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宣祖妃 懿仁王后(1555~1600년)와 繼妃 仁穆王后(1584~1632년)의 염습의대 중 치마류를 보면 單赤尔, 袂赤尔, 襦赤尔, 納赤尔, 小赤尔, 上赤尔로 구분되어 있다. 이 가운데 上赤尔의 기록이 주목되는데

인목왕후 습의대 일습을 보면

大紅金綿的衣 1(雀肩花胸背具)

大紅匹段都多益帶 1

草綠匹段唐串衣 1(雀肩四胸背具)

藍鄉織 赤尔 1

紫的匹段上赤尔 1(膝尔具)

紫的匹段 小串衣 1

白苧布小汗衫 1

白熟綃鳳池 1

白苧布裹衣 1¹¹⁾로 되어있다.

또한 純祖 1女 明溫公主 喪中에 마련된 염습의 일습 중

眞紅桃榴緞裳 內拱白貢緞 膝按具

藍紅桃榴緞裳 內拱白貢緞 膝按具

7) 유송옥 「조선왕조 궁중 의례복식」 수학사 p249 1991.

8) 仁祖莊烈后 「嘉禮都監儀軌」

9) 김용숙 「宮中擡起의 研究」 향토서울 18호 참조.

10) 김용숙 「朝鮮朝 宮中風俗研究」 일지사 p.282~296 1987.

11) 박성실 「朝鮮前期 出土服飾研究」 세종대학교박사학위논문 p.75~91 1992.

藍桃榴緞上裳 膝按具

眞紅大桃榴緞裳 內拱 白禾紬

藍紅大桃榴緞裳 內拱 白禾紬

藍雲紋緞上裳 膝按具¹²⁾로 되어있다.

이상과 같이 上赤尓, 上裳에는 스란이 빠지지 않고 장식된 점으로 미루어 비중있는 의례용이었음을 알 수 있고 그외의 치마류에서는 생략된 부분이 나타나며 스란장식은 부속품으로 기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上赤尓, 上裳, 옷치마의 관계는 어떤것인지, 동일한 제도의 치마라면 국말 상궁들의 증언에 따라 옷치마는 걸치마 아래 먼저 입는 것¹³⁾이라는 주장과 엇갈리는 내용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 스란이 없이 덧주름으로 처리한 치마와 옷치마, 거들치마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왕실과 일반의 용어의 차이는 아닌지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미루어 둔다.

2. 착용방법

전반기 저고리류가 50~80cm에 이르는 길이가 긴 형태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치마는 허리에 맞추어 입게되어 있었으며 「치마허리」라는 명칭도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치마의 주름방향은 현재와 동일하나 여밈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나타남에 따라 치마주름이 걸자락쪽을 향하고 있다.

18세기 단원 혜원 풍속도에는 오른쪽 여밈치마가 많이 나타나며 왼쪽여밈 치마는 1900년대 이후 서울 혹은 기호지방의 풍속으로 나타난다¹⁴⁾고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치마주름을 잡을때는 걸자락부터 잡기 시작하고 경우에 따라 안자락 주름을 일부 생략하기도 하는데 이런 방식은 출토치마도 동일하다. 따라서 주름의 시작은 걸자락쪽 즉 입

은 상태를 기준으로 왼쪽자락부터 위를 향하여 잡게된다. 이것은 손바느질의 경우이고 재봉틀을 사용할 경우에는 넓은폭을 재봉틀 사이에 넣기 불편하여 치마감을 왼쪽으로 보내고 오른쪽 자락부터 아래쪽을 접어주면서 바느질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주름의 방향은 변함없으나 주름의 시작이 오른쪽부터 시작되므로 반대의 경우가 된다. 흥미로운 사항이나 재봉틀의 보급과 바느질 자세가 치마여밈방법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알 수 없다.

3. 착용범위

의례용 치마 1점의 소요량이 36cm 전후 명주폭으로 21마, 65cm 전후 비단폭으로 12마에 이르고 있어 착용자의 신분이 왕족의 후예를 비롯하여 정경부인, 숙부인 등 상류층 부녀자들 사이에 유행되었던 유형으로 보인다.

덧주름형 치마는 후반기 반인계급에서 긴치마를 거두어 들고 다닌데서 나온 「거들치마」¹⁵⁾와 유사하다.

반면 단원이나 혜원 풍속도에서 서민층 부녀자, 기녀, 노비들이 치마를 걸어 올리고 허리띠를 맨 작업복 스타일과는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바느질 방법

특징으로 나타나는 사항은 치마선을 살리기 위한 덧주름과 이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일부 사선 재단이 주목된다.

술기바느질에서 두터운 비단이거나 얇은 비단을 막론하고 가름술이 많으며 도련은 제물단이나 별단으로 혼용하였는데 그 주위를 3땀 상침식으로 3땀씩 감침질한 것이다.

12) 明溫公主房「喪葬禮曆錄」, 1832.

13) 金用淑「앞책」, p.

14) 김미자「치마 저고리의 차림새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출판부 p.108. 1988

15) 유희경「한국복식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495 1980.

아랫단을 제물단으로 처리한 경우에 단을 거죽으로 접어 그 끝을 정교하게 홈질로 바느질하고 다시 안으로 접어 3뿔씩 감침질해 줌으로써 튼튼하게 처리한 점이 주목된다.

두터운 식서 부분은 10~15cm 간격으로 사선 가위밥을 주었으며 바느질 땀수가 1.0mm정도로 정교함에 극치를 보여준다.

치마허리는 겹으로 하지않고 주름 넣을 부분만 안단으로 처리하였으며 홈질의 끈이 달리는 부분에 힘받이 천을 겹으로 대어 튼튼하게 처리하였다.

IV. 결 론

본 박물관에서 다량의 출토복식을 정리하는 과정에는 새로운 형태의 복식이 발견되어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따라 재고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않게 지적되고 있다.

본고는 3번째 시도로써 본 박물관 소장의 16세기 출토치마 중 현대적 감각을 느낄 수 있게 디자인된 의례용 치마류를 비교한 것이다.

각기 다른 분묘에서 출토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류층 부녀자의 복식류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

1. 의례용과 평상용의 구분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2. 의례용은 겨울이나 여름용을 막론하고 홑치마로 만들었으며 평상용보다 30cm 전후 길이에 차이를 보여 앞부분을 다양한 덧주름으로 처리해 주었으며 이는 후반기 거들치마와 유사한 형태이다. 상류층 부녀자들 사이에 유행되었다.

앞부분을 짧게하여 보행시 지장을 주지않고 또 2개의 치마를 겹쳐입기 위한 방법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

3. 치마의 형태로 보아 오른쪽 여밈으로 나타났으며 주름방향은 현재와 같다.

4. 치마 솔기는 식서를 시접으로 이용하였고 가름솔이 많았으며 안단은 제물단과 별단이 혼용되었고 상침형으로 3뿔씩 감침질해 주었다.

5. 치마 허리와 끈은 홈겹으로 주름이 놓여지는 부분만 안단을 대어 정교하게 감침질하였다.

6. 대란과 스란의 구분은 19세기에 보이며 2줄의 직금동자포도문 스란은 雙膝襪으로 기록하였다. 스란의 장식방법이 국말 유물과 차이를 보였다.

7. 上赤, 上裳, 옷치마, 거들치마의 관계는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 김동욱·고복남 「중요민속자료 조사보고서」 문화재관리국 1979.
- 김미자 「치마 저고리의 차림새에 관한 연구」 서울 여자 대학교 출판부 1988.
- 김용숙 「宮中件記의 研究」 향토서울 18호
- 김용숙 「朝鮮朝 宮中風俗研究」 일지사 1987.
- 明溫公主房 「喪葬禮曆錄」 1832.
- 박성실 「朝鮮前期 出土服飾研究」 세종대학교박사학위청구논문 1992.
- 왕우청 「중화복식도록」 세계지리사 1984. 대만
- 「안동지역 전통복식」 안동대학교 박물관(이은주 해설) 1996.
- 유송옥 「조선왕조 궁중 의례복식」 수학사 1991.
- 유희경 「한국복식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0.
- 仁祖莊烈后 「嘉禮都監儀軌」
-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 어문각 1991.

ABSTRACT

A Research of Chima in the Chosun Dynasty

A large quantity of exhumed clothing found for recent 20 years has become the material for making a concrete clarification of the structure of clothing in the Chosun dynasty.

Exhumed clothing means the clothing found in the coffin when the grave of the ancestor

buried several hundred years ago is removed to another place, and it is almost comprised of ordinary clothes of the grave-owner, not mourning clothes, as well as clothing and ornaments in the period between the 15th century and the 19th century.

This research is intended to inquire into the kind of chimas in the 16th century before the Imjin Japanese Invasion of Korea during 1592-1598.

The after effect of the Imjin Japanese Invasion was generally reflected in clothing them, and the structure of clothing in the Chosun dynasty began to overshadow its dichotomy with the Imjin Japanese Invasion of Korea as the point.

Accordingly, this research is concerned with the study of the chima system of the early Chosun dynasty, which shows that there is a common point of the identical form though clothing was exhumed in different graves. Therefore, it was possible to grasp women's clothing that was fashionable at that time.

The object for research is the women in the

upper class of the 16th century, whose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s are depicted as follows :

1. Women in the upper class wore the splendid clothing similar to the ordinary clothing of court ladies.

2. The division of ordinary chima and ceremonial chima appeared in the concrete.

3. Ceremonial chima had its extra width and length and exhibited its exaggerated silhouette. In particular, it had a various forms of over-pleats made at its center front, which play a role in supplementing discomfort in walking. This associate bustle and crinolin styles, through which the modern design of clothing can be glimpsed.

4. The opposite phenomenon was shown that has been perceived up to now, such as folding at the right, plain seam, the treatment of the edge and the like.

5. The elaboration of manual needlework shows the culmination of women's workmanship.